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17일(수) 총 5매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담당자 • 동물관리팀장 윤가리 ☎440-4398 • 담당자 이윤미 ☎440-439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가축전염병 대응 ... 특·광역시 중 1위
- 농식품부, '2022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 서 우수상 수상 -
- 우수 지자체 선정, 포상금(1천만원) 확보 및 장관 표창 -

인천시의 가축전염병 대응노력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 중 1위인, ‘우수상’을 수상해 가축전염병 방역시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대응 노고 격려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서울 제외)를 도(道)부와 시(市)부로 구분해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장관 표창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 시·도별 방역 우수사례 및 가축 질병별 주요 방역시책 등을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7명 이상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정성평가(창의성, 협업, 노력도 등)와 정량평가(ASF, AI, 구제역 방역시책 이행 등)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인천시는 7개 특·광역시 중 1위, ‘우수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천만 원도 수여 받게 됐다.

※ '22 평가결과 : 도(道) - (최우수) 충북, (우수) 강원·경북, (장려) 경남·전북
 시(市) - (우수) 인천, (장려) 대구

인천시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중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역 맞춤형 방역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인천은 공항·항만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상재하고, 북한 접경 지역이자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벨트에 위치해 야생동물에 의한 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곳이다. 또한 도축장(2개소), 배합사료공장(9개소) 등 주요 축산시설이 소재해 축산차량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도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2019년 9월 강화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재입식 평가, 공동방제단 운영, 상시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해 왔다. 또한 동절기 대비 축산시설 방역점검, 구제역 백신 미흡농장 특별관리 및 장마철 가축매몰지 사전 점검 등 위험시

기에 따라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해 왔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우리 시 방역시책을 믿고 따라주신 축산농가들 덕분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역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일해 온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방역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가축방역 지원 현장 사진 등

붙임 가축방역 지원 현장 사진



강화군 거점소독시설(진출입 도로 소독)



가금농가 드론 소독 지원



축산시설 소독 지원(도축장 진입로)



강화대교 가축방역 통제초소(축산차량 소독)